

산단·택지... 광양 개발 바람 분다

광양 신금 산업단지 개발이 본격 추진된다.

광양시는 1일 "지난해 10월 신금지구 개발을 위한 일반산업단지 지정신청을 지난달 27일 전남도로부터 지정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일대 46만3천850㎡ 부지에 들어설 신금 산업단지는 825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돼 오는 2010년까지 개발된다.

신금산업단지가 조성되면 급증하는 광양지역 공장부지 수요에 능동적

신금산단 지정 승인...1,700여명 고용창출 효과

성황·와우·의암·목성지구 등 택지개발도 순조

으로 대처하고 무계획적인 난개발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신금산업단지에는 기계장비 제조업을 비롯해 1차금속, 조립금속 등의 업체가 입주해 1천7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광양시는 신금산업단지에 녹지공

간과 친수공간을 최대한 확보해 친환경 산단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한편 광양시는 신금산단외에도 의산, 장내, 황금 산업단지를 추가 개발해 포스코 광양제철소 후판공장 건설과 오리엔트 조선, 현대스틸 입주에 따른 유관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 각종 투자유치로 예상되는 인구 유입에 대비해 성황과 와우, 의암, 목성 지구 등 택지 개발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성황 지구의 경우 지난달 26일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에 이어 4월 착수 보고회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개발사업이 시작되며 와우지구는 4월 중에 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집행 계획이 공고된다.

/김동호기자 dhkim@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오는 4일부터 구례군 문척면 섬진강변 일대에서 벚꽃 축제가 열린다. 특히 올해는 강변길에 야간 조명이 설치돼 밤에도 화사한 벚꽃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흐드러진 벚꽃의 유혹' 떠나볼까

'구례 섬진강변 벚꽃축제' 4일 개막
벚꽃연주회·즉석 어울마당 등 다채

'제 5회 구례 섬진강변 벚꽃축제'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문척면 섬진강변 일원에서 열린다. '오산과 섬진강의 만남, 벚꽃과 함께하는 추억'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4일 좌도농악의 길트임 공연을 시작으로 최우정 예술단공연, 페러글라이딩 축하비행, 섬진강 벚꽃연주회, 섬진강변 벚꽃가요제와 환상의 불꽃놀이 등이 펼쳐진다.

둘째 날인 5일에는 관광객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섬진강변 벚꽃길 걷기, 어린이 꿈나무 공연, 태권도 시범공연, 관광객 즉석 어울마당 등이 열린다. 셋째 날인 6일에는 오산과 섬진강변 일원에서 인라인 스케이트 경주, 광주·전남 택견 한마당과 페러글라이딩 대회가 실시된다. 특히 섬진강을 따라 이어지는 강변길에 야간 조명을 설치해 밤에도 화사한 벚꽃을 감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행사장 주변에서 맷돌 콩두부, 도토리묵 등 구례 향토 음식을 맛볼 수 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예산 10% 절감·중기 지원·공공요금 동결 등

순천 새정부 정책 적극 대응키로

순천시가 새정부 정책을 뒷받침 하기 위해 예산 10% 절감에 나선다.

순천시는 지난달 31일 노관규 시장과 나승병 부시장, 실·국·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 정부 주요 업무 대응 전략 보고회를 갖고 예산편성 사전심사제 시행 등으로 올해 예산 10%를 줄이기로 했다.

또 예산 증가가 수반되는 공사 설계 변경을 신중하게 추진하고 중소기업과 농공단지 입주 업체 제품 구매를 확대키로 했다.

시는 성실한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시내버스와 가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통한 물가 안정 종합 대책도 추진한다. 이밖에 ▲전통시장 및 상가 활성화대책 수립 ▲소상공인 창업 아카데미 및 상인대학 운영 ▲마그네슘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정부의 공공시설 도서관 활용방침에 발맞춰 이미 한옥 글방과 작은 도서관 3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도민체전 성화 점화자 모집합니다

고흥군 10일까지 접수

고흥군이 오는 10일까지 제 47회 도민체전 최종 성화 점화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우주항공도시인 지역 이미지를 살리고 인공위성 성공 발사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주민등록상 성명이 '이소연'과 '고산'인 초등학교 5학년 이상 중학생까지로 고흥군과 전남 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한다.

참가신청은 오는 10일까지 우편이나 군청 지역활력화 사업단으로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성화 점화자에게는 별자리·별이름 1개가 특별 분양되고 의복, 참가 실비 등이 지급된다.

한편 고흥지역에서는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공설운동장 등에서 '제 47회 전남도민체육대회'가 열린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우주선 본 뜬 가로등 선보여요"

고흥, 도민체전 앞두고 가로등 대폭 정비

고흥군이 전남 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시내 주요 간선도로 가로등 정비에 나선다.

고흥군은 고흥읍 진입로를 비롯해 공설운동장 입구 등 주요 간선도로 2.6km 구간에 3억 8천만 원을 들여 가로등 100여 개를 신설하거나 개·보수할 방침이다.

신설되는 가로등은 우주선 모형을 형상화, 우주항공의 중심도시를 상징

하고 있다. 이 가로등은 눈부심을 최대한 억제하고 기온저항보다 전력 사용량이 50w 이상 적어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한편 제 47회 전남도민체육대회는 오는 22일부터 4일간 고흥 공설운동장 등 20여 곳에서 선수와 일반 6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향토음식 거리로 놀러 오세요"

'엑스포 도시' 여수, 먹거리 골목 조성

먹거리가 풍부한 여수에 향토음식 특화거리가 조성된다. 여수시는 이순신 광장이 조성되는 중앙동 일대를 서대회와 서대점, 아귀탕, 아귀찜 전문거리로, 봉산동 일대는 게장백반 거리로 조성한다.

또 소라면 덕양리는 곱창전골

및 각종 구이, 경도는 하모로 불리는 갯장어, 교동은 장어탕 거리로 조성된다.

이와함께 바다를 끼고 있는 돌산대교와 소호동은 활어회, 문수동은 꼬치구이, 여서동은 삼삼거리를 각각 만든다.

여수시는 이 같은 향토음식 특

중앙동-서대회·찜
봉산동-게장백반
덕양리-곱창전골
경도-갯장어

화거리가 2012년 세계박람회와 제 89회 전국체전, 거북선대축제 등을 앞두고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객들에게 여수 특유의 먹거리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光州日報 지사안내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
여수 (061) 653-8444	목포 (061) 276-9200	나주시 (061) 332-5544
광양 (061) 792-8111	강진 (061) 434-6830	나주군 (061) 332-7764
순천 (061) 746-8111	무안 (061) 452-8535	담양 (061) 383-8111
고흥 (061) 842-2121	신안 (061) 243-3758	영암 (061) 473-2340
구례 (061) 783-8111	완도 (061) 554-6677	정성 (061) 392-2100
곡성 (061) 362-8111	영광 (061) 351-0055	장흥 (061) 863-8822
보성 (061) 853-9700	진도 (061) 543-0100	화순 (061) 374-4423
	함평 (061) 324-8111	광산 (062) 944-0444
	해남 (061) 534-5151	

Sense Wood 신품가구 80~70%

주거

봄 맞이
본사지원
Big Sale

침실

주방

가전

식당

사무

사무

주거